



제 2018-170호

중국

## 중국 공연예술의 '저우추취' 가속화, 공동제작과 저작권 수출이 대세

북경사무소

### ■ 현황

- 얼마 전 폐막한 제12회 상하이 국제예술페스티벌(China Shanghai International Arts Festival)\*에서 약 200여 개의 중국 문화공연의 '저우추취(走出去, 해외진출)'와 관련된 MOU가 체결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음

\* 상하이 국제예술페스티벌은 중국 문화부가 주관하며,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주최하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행사로서, 세계 우수 문화를 배우고, 중화민족의 예술을 널리 알리고, 중국과 외국의 문화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개최되고 있음

### ■ 주요 내용

- 시진핑 정부는 자국의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 문화의 '저우추취'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, 이번 페스티벌에서 해외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공연단체가 중국 예술 공연의 해외 공연에 큰 관심을 보임



- 상하이 국제예술페스티벌에서 공연 등의 거래를 담당하는 리우단(刘丹)주임에 따르면 “중국 문화·예술 공연의 해외 진출은 공연단체 선발, 공연 광고 등 선전, 실제 공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, 이미 12회를 맞는 상하이 국제 페스티벌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”라고 밝힘
- 최근 중국에서는 상하이 국제예술페스티벌이라는 큰 행사를 통하여 해외로 ‘저우추취’하는 중국 문화공연의 수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.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총 8개의 문화·예술 공연이 ‘저우추취’에 성공해서 21번의 공연을 했으며, 2018년 9월까지 모두 19개의 공연이 ‘저우추취’해서 총 195번의 공연을 함
- 이와 같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국 문화공연의 수량과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문화공연을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 어떻게 흥행에 성공시킬지에 대한 것이 관건임. 이와 관련하여 리우주임은 “인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, 형식에 있어서 중국 공연 팀이 그대로 가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,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제작, 그리고 ‘저작권 수출’등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”이라고 밝힘
- 리우주임에 따르면 최근 주목되는 현상은 “과거와 달리 문화·예술 공연의 공동 제작과 저작권 수출 등 협력이 과거보다 각광받고 있다”라는 점임

## ■ 평가

- 중국정부의 ‘저우추취’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들이 많아짐으로써 더 많은 중국의 공연들이 해외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됨. 나아가 중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또한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,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슷한 문화를 가진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국기업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



■ 출처

○ 국가판권국망(国家版权局网)

- <http://www.ncac.gov.cn/chinacopyright/contents/4509/388003.html>